

## 광주·전남 상생위 '군공항 이전·초광역 경제권 육성' 합의

1년여 만에 전남도청서 상생발전위 개최

10개 협력 과제 합의·공동 번영 추진키로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1년여 만에 시·도 공동 번영을 위한 상생발전위원회를 갖고 군공항 이전 등 협력 과제를 선정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1일 오후 전남도청 서재 필실에서 상생발전위원회를 갖고 10개 협력 과제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시·도는 코로나19와 정부 정책 등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초광역 경제권을 육성하고, 영산강 르네상스를 여는 등 새롭고, 더 큰 광주·전남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기로 했다.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해 광주·전남 합동지원단을 구성하고 치료병상을 나누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균형 뉴딜·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린뉴딜·SOC·관광·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초광역 협력사업'을 발굴해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

이다.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으로 지역 대학의 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 미래전략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마한문화권 복원과 정비, 광주 시티투어와 전남 남도한바퀴를 연계한 공동 관광상품 개발도 협력과제로 포함됐다.

광주 군공항은 이전 대상 지역의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토부·국방부·광주시·전남도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범정부적인 지원대책과 특별법 개정, 연구용역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도는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활성화,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농업·복지 융합형 서비스 모델 창출, 영산강 수생태 건강성 복원 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1일 오후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시·도 실국장들이 발표문을 들고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이날 회의에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시·도 실국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김정환기자

## 광주·전남 2단계 격상 '초읽기'...지역 확진자 1000명 돌파

주요 사업장 조업 중단도 속출  
교육계, 하루 검사자만 5600명  
광주 오늘 민관공동대책위 소집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한 '잔인한 11월'을 거치면서 광주·전남지역 내 감염자수가 1일 현재 1000명을 훌쩍 넘어섰다. <관련기사 8.9면>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대기업 사업장을 비롯해 거점병원, 군부대, 교도소, 학교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투했고, 가족과 직장 동료, 지인 등을 타고 'n차 감염'도 끊이지 않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준2단계(강화된 1.5단계)로 정밀방역에 나서고 있으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수능과 성탄절, 연말연시 등 인구 대이

동 길목도 많아 최소 2단계 격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감염 1000명 '훌쩍'...40% 11월 확진 이날 광주·전남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2월 초 지역 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이날 오전까지 누적확진자는 광주가 720명, 전남이 426명으로 모두 1146명에 이르고 있다. 가운데 지역 내 감염은 광주 640명, 전남 374명 등 1014명으로, 비율로는 88%에 이른다.

최근 1주일새 신규 확진자(해외유입 제외)는 24일 22명, 25일 23명, 26일 23명, 27일 21명, 28일 26명, 29일 14명, 30일 24명 등이다. 30일 확진자는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주에서 발생했다. 3차 대유행이 정점에 이른 지난 8월26일, 39명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병원이나 자택에 격리중인 인원도 광주와

전남 합쳐 3800명을 넘어섰고, 확진자 접촉이나 방문 등으로 검사중인 인원만도 1만3500명에 이른다. 지난 9개월간 누적 검사 인원도 광주는 23만 명, 전남은 11만 명을 넘겼다.

◆주요 사업장 '코로나 격랑'...조업 중단 속출

사업장 내 확진자 발생으로 기아차 광주1공장,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위니아 광주전자 냉장고 생산라인이 일시 가동 중단됐다. 일부 생산이 재개됐다.

주요 사업장 생산직 근로자인 축구동호회 회원들이 운동 후 방문한 광산구 맛집과 당구장, 감염 경로가 명확치 않은 광주 676번(이마트 광주점 직원)과 관련된 n차 감염이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5명이 확진된 기아차 광주공장에선 광주 1·2공장과 하남공장 일부 근무조에 대한 휴업

조치로 공장 가동이 중단됐고,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냉장고 생산라인이 들어선 1캠퍼스 제조동 건물이 폐쇄돼 조업이 일시 중단됐다.

하남산단 내 위니아전자 광주사업장에서도 생산직 직원 1명이 확진돼 접촉자 270명에 대한 진단검사가 진행됐고, 일부 생산라인도 멈췄다.

지난달 28일 협력사 직원(광주 680번)이 처음으로 확진된 금호타이어 곡성공장도 접촉자 인 협력사 직원 1명과 생산직 사원 1명 등 모두 3명이 확진되면서 공장가동이 중단됐다.

호남권 거점병원인 전남대병원도 이날 오후 코호트 격리를 해제, 18일 만에 진료가 정상화됐다.

◆교육계도 '비상'...하루 검사자만 5600여명

11월에만 광주에서 유치원 3곳, 어린이집 2곳, 초등학교 4곳, 중등학교 5곳, 고등학교 3곳 등 교육기관 17곳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됐다.

30일 하루 동안에만 선운초와 운남중 등 4개 초·중학교 학생들이 잇따라 확진판정을

받아 같은 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 5674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여수, 순천, 영암 등지에서는 고3 수험생 확진자가 잇따랐다. 3차 유행 때까지만 하더라도 단 한 건도 없었던 교내 감염도 광주, 전남에서 각각 발생했다.

◆'엄중, 위기'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간문제'

확산세가 멈추지 않자 광주시 방역 당국은 2일 오전 0시를 기해 생활체육 동호회와 집단체육활동을 전면 금지했다. 축구·골프 모임 등을 매개로 지역사회 곳곳으로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박항 시 복지건강국장은 "특정 장소에서만 대거 발생하던 과거와 달리 이번엔 전남대병원, 축구동호회, 외지 유입 등 큰 위험 요인들이 흩어져 있는 데다 수능과 이후 수험생들의 외부 모임, 성탄절, 연말 연시 등에 인구 대이동이 예상되고 있어 겨울철 대유행마저 우려된다"며 선제적 거리두기 격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기동취재본부